

국내 MICE 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안 :국내외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김민선*

*협성대학교 경영대학 호텔관광경영학과

e-mail:sunnyminkim@hanmail.ne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of MICE industry in Korea

Min Sun Kim*

*Dept. of Hotel & Tourism Management, Hyupsung University

요약

우리나라는 2009년 MICE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시설 확충 등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 국제회의 개최 건수에서 세계 상위권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MICE 산업 육성 전략은 거시적인 지표에 기반한 비전 설정에 치중하여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미시적인 취약 요인 분석 및 내실적인 측면 강화에는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아 오며 이는 낮은 부가가치 창출, 취약한 국제화 수준, 미약한 전후방 연쇄 효과 등의 문제로 이어져 왔다. 본 연구는 국내 MICE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글로벌 선진 사례 및 국내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미시적 산업 생태계 선진화 및 공정 경쟁 환경 구축, 미래형 MICE 전문 인력 양성 및 근로 환경 개선, 기술 융합 기반의 고부가가치 콘텐츠 창출 및 ESG 경영 도입, 지역 특화 기반의 통합 MICE 마케팅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서론

MICE 산업(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Event)은 고부가가치 창출과 전후방 산업 연계 효과가 매우 커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MICE 행사는 단순 경제 효과를 넘어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최신 산업 정보 교류를 통해 교역 확대와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적 서비스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MICE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시설 확충 등 양적 성장을 이루어 국제회의 개최 건수에서는 세계 상위권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MICE 산업 육성 전략은 거시적인 지표에 기반한 비전 설정에 치중하여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미시적인 취약 요인 분석 및 내실적인 측면 강화에는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낮은 부가가치 창출, 취약한 국제화 수준, 미약한 전후방 연쇄 효과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MICE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글로벌 선진 사례(미국, 싱가포르)와 국내 우수 사례(인천)를 비교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관광학적 관점에서 인력, 기술, 지역 연계 및 정책 시스템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국내 MICE 산업의 현황 및 구조적 문제점

2.1 양적 성장과 질적 한계

국내 MICE 산업은 국제회의 개최 건수(UIA 기준)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는 대규모 컨벤션에 편중되어 있어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Meeting 부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고부가가치 전시회(Exhibition)와 인센티브 투어(Incentive Travel)의 국제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2.2 취약한 산업 생태계와 공정 경쟁 환경

MICE 산업 생태계의 취약성은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모두 나타난다. 민간 부문에서 MICE 행사 입찰시 저가 발주, 특정 항목 제외 요구, 지적재산권 불인정 등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MICE 기업의 수익성과 혁신 동력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공공 부문에서 수도권과 지역 간의 과열 경쟁이 시장을 레드 오션으로 만들고 지역 경제의 수익 창출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도 야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간 공정 경쟁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 제도를 일원화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했으나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육성 체계의 구축은 여전히 진행형 과제이다.

2.3 전문 인력의 부족 및 근로 환경 문제

MICE 산업의 성패는 결국 전문 인력에 달려있으나, 국내 인력

현황은 불안정하다. 국내 MICE 종사자들은 주당 평균 45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이로 인한 업무 과중이 주요 경력직 이탈 및 이직 사유로 지목된다. 특히, 기획업체 및 지원기관 종사자들은 이직 시 MICE 업계를 완전히 떠나는 경향이 강하여 경력직 인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신입직 채용 시 학력이나 자격증보다 조직 적응력과 외국어 능력이 중시되는 반면, 대학 및 아카데미 교육이 현장 요구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교육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업계가 요구하는 행사 기획/운영 인력에 대한 특화된 경력 개발 경로 구축이 시급하다.

3. 국내의 MICE 산업 성공 사례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MICE 산업의 글로벌 리더인 미국(라스베이거스)과 싱가포르를 해외 사례로, 인천을 국내 우수 사례로 선정하여 전략적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표 1] 국내외 MICE 산업 성공 사례

구분	미국(라스베이거스)	싱가포르	국내(인천)
핵심 전략	복합 레저 단지 기반의 MICE 유치 및 지역 비즈니스 연계	전략적 클러스터 및 고부가가치 컨퍼런스 집중 유치	보상관광(Incentive Tour) 특화 및 스토리텔링 기반 지역 연계
주요 인프라	대형 컨벤션 센터,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복합 리조트	마리나베이샌즈 등 대형 복합 리조트, 최첨단 시설, 우수한 공항 접근성	송도 컨벤시아, 인천공항, 한류/지역 문화 콘텐츠
정책 지원	단순 레저가 아닌 지역 비즈니스 연계를 통한 MICE 산업 외연 확장	정부의 강력한 육성 의지, 관광청 내 BTMICE 부서 설립, 전략적 클러스터 형성 유도	지역 특화 컨벤션 발굴 및 인큐베이팅 단계 지원, 권역 마케팅 활성화
시사점	규모의 경제 및 압도적인 엔터테인먼트 연계로 체류 기간 및 소비 극대화	도시 국가의 한계를 극복한 집중 전략과 정부/민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	비시설적 요소(콘텐츠/스토리)를 활용한 아시아 시장 공략의 성공 가능성

구분	전체 방문객 수	전시컨벤션 참가자 수	객실 수	객실세
2019년	4252만	664만	14만9422	2억9667만
2020년	1903만	173만	14만3117	1억1748만
2021년	3223만	221만	15만1487	2억2454만
2022년	3883만	499만	15만1857	3억2910만
2023년 1~11월	3743만	579만	15만2299	3억392만

자료:라스베이거스관광청(LVCVA) * 2023년 객실세는 1-10월

이코노미스트

[그림 1] 연도별 라스베이거스 관광 및 MICE 통계

행사명	개최 시기	예상 인원
세미콘 동남아시아	5월	1만 8000
토콘 2049	9월	1만
싱가포르 F1 그랑프리	9월	26만
마이스쇼 아시아	10월	1만 3000
싱가포르 교육 박람회	11월	1만

자료:자료 취함

[그림 2] 싱가포르 MICE 통계

2024 인천 MICE 조사구 분석 인천 MICE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구분	생산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간접유발효과
국제회의	직접효과	146,852,491,716	4,339,080,194	37,573,313,474	73,416,482,054	1,878
	간접효과	70,056,137,540	17,830,619,172	10,185,579,487	28,060,139,628	345
	총효과	216,908,629,256	22,228,699,366	47,761,092,971	101,476,621,682	2,023
기타회의	직접효과	315,744,114,348	15,293,337,782	73,205,078,483	143,419,627,253	6,339
	간접효과	143,708,489,182	45,309,453,239	18,155,502,375	35,893,408,820	737
	총효과	461,452,603,530	60,602,791,021	92,360,580,858	180,383,037,073	4,376
포상관광	직접효과	90,274,347,589	2,543,866,398	11,898,500,700	24,271,085,699	477
	간접효과	18,171,399,170	6,548,940,692	2,318,049,307	6,787,027,313	77
	총효과	88,343,148,759	8,113,807,090	14,302,586,067	31,028,093,012	554
기업회의	직접효과	96,780,979,828	3,570,363,097	23,781,529,972	47,249,176,596	1,039
	간접효과	43,486,318,866	12,144,171,962	6,161,962,933	17,056,052,474	205
	총효과	140,277,298,694	15,714,535,059	29,942,592,905	64,305,229,070	1,244
전시	직접효과	156,731,478,407	5,205,585,161	37,537,503,028	75,348,493,862	1,873
	간접효과	72,432,419,004	19,400,484,538	10,190,887,100	20,019,812,747	373
	총효과	229,163,897,411	24,601,969,699	47,728,390,128	95,368,306,609	2,246
이벤트	직접효과	404,298,064,096	12,249,080,601	100,890,486,374	195,138,958,083	4,855
	간접효과	200,363,135,281	50,562,028,719	29,038,814,223	80,571,100,792	1,022
	총효과	604,661,199,377	62,811,109,380	129,929,300,597	275,809,958,876	5,877
전체	직접효과	1,172,842,471,082	43,276,119,241	284,776,312,100	588,842,803,548	13,560
	간접효과	650,187,800,055	181,796,691,432	77,048,211,436	217,388,142,773	2,780
	총효과	1,723,030,271,138	185,071,804,673	361,824,523,536	798,210,946,320	16,339

[그림 3] 인천 MICE 산업 경제 파급효과

4. 결론

국내 MICE 산업은 외형적 성장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 불안정한 인력 구조,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의 내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해외 사례는 규모의 경제(미국)와 전략적 집중 및 민-관 협력(싱가포르)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국내 사례(인천)는 지역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차별화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준다. 한국 MICE 산업은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가치사슬 전반의 질적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

국내 MICE 산업은 기존의 시설 중심 경쟁(MICE 1.0)이나 단순 유치 경쟁(MICE 2.0)을 넘어 'MICE 3.0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다. MICE 3.0 시대는 기술(Tech),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인간 중심의 경험(Human-centric Experience)을 융합하는 시대를 의미한다.

미국의 사례는 시설과 규모가 경쟁 우위의 기반이 됨을 보여주지만, 이는 막대한 자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의 한계를 전략과 협력으로 돌파했다. 즉, 하드웨어(시설)의 양적 경쟁보다는 소프트웨어(전략, 인력, 시스템)의 질적 혁신이 한국의 나아

갈 방향이다. 국내 MICE 산업은 이제 '무엇을' 유치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취약한 '사람(인력)'과 미흡한 '시스템(공정 거래 및 지역 연계)'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참가자 경험 극대화 및 역사사회와의 상생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단기적인 유치 성과보다 지속가능한 'MICE 생태계(Ecosystem)' 의 조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09656>
- [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55720>
- [3]<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28486642139072&mediaCodeNo=257>
- [4]<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54809>
- [5]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12371500&curPage=1
- [6]<https://www.spo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0017>
- [7]<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44539>
- [8]<https://itour.incheon.go.kr/ssst/ssst/detail.do?cotId=ITD21120914163195385>